

아주경제

국제갤러리, 멕시코 출신 가브리엘 쿠리 한국 첫 개인전

박현주 기자(hyun@ajunews.com) | 등록 : 2015-06-04 17:17 | 수정 : 2015-06-04 17:17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는 멕시코 출신 현대미술작가 가브리엘 쿠리(45)의 국내 첫 개인전을 펼친다.

쿠리는 조각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회를 향한 비평적인 시각으로 작품세계를 구축, 국제적으로 조명받고 있다.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미국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작품은 강철, 돌과 같은 조각에 전통적으로 쓰여왔던 재료 외에도 일상적이지만 사회적인 역할을 함의하고 있는 오브제로 사용된다. 늘 보는 지폐나, 작가가 여행 중 발견한 대수롭지 않은 일용품과 익숙한 공산품 등을 차용한다.

쿠리는 "나는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공통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작품 소재로 사용한다"며 "이런것들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조각의 언어로 한국에서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도 작가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수집한 오브제가 작품 일부로 사용했다.

전시작 'Won Won'에는 1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짜리 한국 지폐가 대리석 사이에 꽂혀있고, 'Stock Stock'이라는 작품에는 대리석 교차부분에 종이컵이 박혀있다. 또 돌, 벽돌, 슬리퍼, 알루미늄 롤 등을 활용한 작품이 소개됐다.

국제갤러리는 "중고품 거래 장터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단순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듯한 상황을 연출한 작품들은 궁극적으로 공공장소 및 문화적 교류의 익숙한 관행들에 대한 질문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7월5일까지. 02-735-8449.

박현주 기자 hyun@ajunews.com

©'한중·영·일 4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